

물고 답하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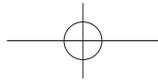
37

참하나님이시고 참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문고 답하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6)

가장 먼저 배우는 산수는 '1 + 1 = 2'이다. 진흙 두 덩이를 합하여 한 덩이로 만들어 놓고 '1 + 1 = 1'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진흙의 무게나 부피가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강변은 역지가 된다. 아무도 '1 + 1 = 1'이라는 수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기본적인 수식을 넘어선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여 한 위격(位格)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는 '1 + 1 = 1'이라는 수식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단지 수식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주일과 6주일에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참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라고 고백한다. 15-18문답에서 한 가지씩을 살펴가는데, 이것은 고대 교회에서부터 논의한 주제이다. 먼저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문고 답하는 내용을 검토하겠다.

니케아 공의회(325년), 칼케돈 공의회(451년)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년)

고대 교회에서 처음 다룬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분이신지, 아니면 유사한 본질을 지닌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었다. 주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에 열린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지니신 분이심을 확정하였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니케아 공의회(325년)를 소집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중앙)와 거기에 참여한 주교들이 니케아 신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성화



칼케돈 공의회 1500년 주년 기념 우표 (1951년 바티칸)

인용한 문구에서 보면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예수님을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확정하였으나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위격 안에 연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한 위격과 한 본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었고, 두 본성이 분리되거나 분할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두 본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었다. 주후 451년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개최된 칼케돈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신성으로는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동일하신 분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으로는 하나님을 낳은 분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드님,
주님, 독생자는 두 본성으로 알려지시되,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으십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비를 명료한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하지 않음을 말하고, ‘둘’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하여서는 두 본성이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음을 말하였다. ‘성육신의 신비’를 해체하여 설명하기보다는, 신비를 그대로 놓아두고서 다만 극단적인 주장만을 금하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성육신의 목적,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18문에서는 각각 ‘종보자의 성격’과 ‘그분이 참인간이셔야 하는 이유’, ‘참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누가 그러한 성격의 종보자이신가’ 하는 주제를 다룬다. 마치 집을 짓듯이 하나씩 다루는데,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참하나님이시고 참사람이신 분이 바로 우리

의 구원자이고 종보자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원론적 특성은 칼케돈 공의회와 정신을 잘 따르고 있다. 거의 1,100년의 차이를 넘어서 보편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되고 의로우신 인간(16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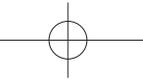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서 짓값을 찾으시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사람’에게서 짓값을 찾으신다.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지만, 그것을 파기했을 때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창 2:17). 따라서 천사나 동물과 같은 다른 피조물은 사람의 죄책을 대신 질 수 없다(14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7-8).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일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방편이었다.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으며(벰전 3:18), 그 입에 꾀사가 없으시며(벰전 2:22; 사 53:9),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짓값을 치르셨다(벰전 1:19). 구약의 백성들도 장차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과 달리 죄를 범하지 않은 자’ 곧 ‘의로운 가지’이신 분이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을 소망하였다(렘 33:15).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후 5:21).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인정한 사실이었다(눅 23:22).

참하나님(17문)

17문의 답은 “그의 신성(神性)의 능력으로”라는 말로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참하나님이심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성의 능력으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므로 그러한 진노



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 하였다. 어떠한 사람도 단지 사람으로서는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의 의로운 진노를 받을 수 없으며(나 1:6), 또한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중보자는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시다(요 10:17-18). 단지 피조물로서는 자기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참인간이고 동시에 참하나님이신 이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자신의 인성에 짊어지셨다.

둘째, 중보의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서도 중보자는 참하나님이셔야 했지만, 또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도 참하나님이셔야 했다. 즉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의와 생명을 얻으셨다(딤후 3:16). 또한 중보자로서 얻으신 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롬 4:25).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벧전 3:18)이다. 중보자께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참하나님이셔야 하였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일만을 강조한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주장과 구분되는 점이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입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그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8문)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인지?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救贖)함이 되신 분입니다.

참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요 참하나님이신 분을 세상 어디서 찾을 수 없지 않느냐는 듯이 18문은 '그러나' 하면서 묻는다. 그렇지만 '그러나'라는 이 말은 수사학적인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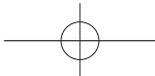
이다. 왜냐하면 마치 찾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제1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미 아는 상태에서 15문에서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고 묻고, 16-17문에서는 '중보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를 규정하였으며, 이제 18문에서 '누가 그 중보자인가?' 하고 묻는다. 차근차근 따지면서 묻는 형식을 취하지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18문의 답은 논리적인 결론으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18문의 질문은 '그러나'로 암울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보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도록 이끈다. 신앙고백으로서 요리문답 교육 방식의 묘미가 한껏 드러난 예이다.²⁾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기쁘게 고백한 후, 우리의 요리문답은 고린도전서 1:30을 인용한다. 먼저 그 문맥을 보면, 고린도전서 1:18-2:16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시킨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 지혜를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다가 1:30에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지혜'는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 말로 설명이 되고 있다. 세상의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1) F. Klooster, Our Only Comfort I, p. 176.

2) Bijl, Houvast en troost, p. 66.



세상의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죄의 노예 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원래의 상태로 살 수 있다. 의와 거룩함과 구속은 중보자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큰 선물이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전 2:8).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을 죽여서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였다(요 11:48).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것처럼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로써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또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전 1:18, 24).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달리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지혜이

다. 이러한 지혜와 능력은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신께서 나타내 주실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고전 2:4-5, 12).

경건의 비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들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딤후 3:16) 하고 외친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훈은 큰 비밀이고, 사람으로서의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경건의 비밀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은 그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바르게 깨닫는 자에게 알려지는 신비이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